이타스와 내쇼날인스트루먼트, 합작법인 설립

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소프트웨어 정의 플랫폼과 이타스의 세계적인 테스트 및 검증 솔루션이 만나다

이타스와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선통합 HiL 시스템을 공동 설계, 제작 및 서비스하기 위한 협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ECU 및 센서 등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와 검증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입니다.

자동차 산업에 수십 년 간 몸 담은 두 혁신 기업의 파트너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공고해질 전망입니다.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소프트웨어 정의 플랫폼과 포괄적인 I/O 역량이 이타스의 HiL 솔루션 개발 및 통합 전문성과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테스트 역량이 탄생될 것입니다. 이러한 테스트 역량은 전동화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입니다.

양측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둘 합작법인의 지분을 50%씩 갖게 됩니다. 합작법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며, 50명의 직원을 고용하되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.

프리트헬름 피카르트(Friedhelm Pickhard) 이타스 이사회 회장은 "ECU 및 센서 등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및 검증을 개선하여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.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컴포넌트 포트폴리오와 이 기업의 강력한 브랜드, 고품질 제품 및 문화적 유사성을 볼 때,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우리와 매우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"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
또한 에릭 스타크로프(Eric Starkloff) 내쇼날인스트루먼트 회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는 "두 기업의 훌륭한 역량, 분야별 전문성 및 세계적인 발자취를 바탕으로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자동차 부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의 개발 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"라며, "파트너십 실현을 위해 대단한 진전을 이루어낸 두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."라고 덧붙였습니다.

합작법인은 효율적인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설계 사이클, 테스트 소요 시간 및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

영문 원문으로 보기

저자

안자 크랄(Anja Krahl)
브랜드관리, 언론 홍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룹 매니저 및 이타스 대변인

이타스 및 내쇼날인스트루먼트 경영진, ETAS NI Systems 이사 레안드로 폰세카 (Leandro Fonseca, 뒷줄 좌측 두번째), ETAS NI Systems 기술이사 한스-피터 뒤르 (Hans-Peter Dürr, 뒷줄 우측 두번째).